



국제플라자 뉴스



공익재단법인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880-0805 宮崎市橘通東4-8-1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1층
Tel:0985-32-8457 Fax:0985-32-8512 Homepage:https://www.mif.or.jp E-mail:miyainfo@mif.or.jp
개관시간:오전10시~오후7시 (화요일~토요일) 휴관일:일·월·공휴일, 연말연시 (12월29일~1월3일)

Zoom으로 온라인 일본어 초급

미야자키현 중앙 지역

※사전신청 필요



온라인으로 일본어를 공부합니다!
처음으로 일본어 공부를 시작하는 분, 히라가나·가타카나부터 공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강좌입니다.
※Zoom은 Web회의의 시스템으로 다운로드가 필요합니다.

일정: 6월 16일(화)~9월18일(금)

매주 화요일·금요일

오리엔테이션(1시간) 1회, 일본어 수업 총 25회
10:00~11:40

대상: ①미야자키시·타카나베정·아야정·니시메라손·사이토시·신토미정·타카나베정 카와미나미정·쓰노정·키조정에 거주하고 있으며 Zoom을 사용 가능하신 분
②20세 이상이며, 학생 신분이 아니신분
③오리엔테이션 1회(1시간)과 전 수업 25회 참가 가능하신 분

정원: 8명(응모 인원이 많을 경우 추첨)

※비근로자·미야자키시 시외 거주자를 우선시합니다

수강료: 무료 ※교과서비는 별도

교과서: 『いっぽ にほんご さんぽ 初級1』

※자세한 내용은 메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문의처 : (공재)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

플라자 재개 안내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잠시 중단했던 사업을 재개합니다.
5월 12일(화)부터 도서 대출이 가능하며,
또 국제 플라자미야자키 외국인 서포트 센터 옆에 위치한 자유 공간도이용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의 수업도 순차적으로 재개할 예정입니다.

- 일본어 강좌 (초급) 6/2 (화) ~
- 일본어 연습회 5/27 (수) ~
- 국제 교류 챗트
 - 영어(초급) 5/30(토) ~
 - 영어 (중·상급) 6/6 (토) ~
 - 중국어 5/26 (화) ~
 - 한국어 5/28 (목) ~



여러분들의 많은 방문 바랍니다.

(방문하실 때는 마스크 착용, 기침 에티켓 등 감염 예방을 위한 협조 부탁드립니다)



【개정판】방재 팸플릿에 대해서

외국인을 위한 방재 팸플릿(신간)을 꼭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방재 팸플릿은 국제 플라자·미야자키 외국인 서포트 센터에서 무료로 배부하고 있으므로 자유롭게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6월~7월은 장마의 계절. 지금부터 살펴두어야 하는 것이 호우·홍수 등의 자연재해입니다. 현내 각지에서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 주민 중에는 피난했던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대 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 재해가 일어난다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대책을 강구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의처 : 미야자키 외국인 지원 센터
접수일시

화요일 ~ 토요일 10:00 ~ 19:00
공휴일, 연말 연시 12/29~1/3제외
TEL:0985-41-5901 FAX:0985-41-5902
E-mail:support@mif.or.jp

HP



Facebook



찬조회원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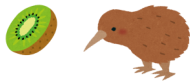
연회비 2,000엔 단체:10,000엔



찬조회원이 되시면...

- 매달 발행하고 있는 「국제플라자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 연 2회 발행하고 있는 광고지 「South Wind」를 보내드립니다.
- 협회가 개최하는 강좌에 우선참가 가능합니다.
- 협회가 개최하는 강좌의 참가비가 할인됩니다.
- (찬조단체대상)협회홈페이지에서 링크가능합니다.





미야자키 체재 경험이 있는 Siobhan Hall씨로부터 뉴질랜드에서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2020년 3월 24일, 뉴질랜드 정부는 경계 레벨 4로 록다운(도시 봉쇄)을 발표했습니다. 영업하는 곳은 생활에 꼭 필요한 슈퍼마켓, 약국, 주유소뿐이었습니다. 그 외의 가게들은 휴업하고 가능한 한 재택근무를 요청받았습니다.

접촉 가능한 사람은 같은 집에 거주하는 남편뿐. 아이와 손자, 부모님,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불가능하였고, 그 결과 코로나 감염자는 감소했습니다. 4월 28일자로 뉴질랜드 감염자는 3명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가까운 곳이라면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산책과 조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외출이 불가능하여, 장을 보러 가지도 못해서 가족에게 부탁하거나 집까지 배달해 받아야 합니다. 같은 날에 정부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경계 레벨을 3으로 내리고, 일부 기업은 재개하였습니다. 레스토랑과 카페는 테이크 아웃으로만 영업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들은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가게 밖에서 기다리며 커피와 요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두 명의 소인원 일 경우에는 가족과 만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레벨 3의 상태가 2~3주간 지속 되었고, 그 후 레벨 2로 떨어지고 나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로 복귀하는 것을 기대했지만, 아직까지는 사람과 가까운 접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봉쇄국' 상태는 계속해서 이어져 다른 나라들과 같이 뉴질랜드도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운동하고 있습니다. 조깅은 밖에 나와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집니다. 또, 건강에 좋은 요가와 필라테스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주 온라인 술자리도 즐겁습니다.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근황 보고를 합니다. 남편과 정원 꾸미기도 하고 있습니다. 록다운으로 가족과 만나지 못하는 것은 힘들지만, 가능한 한 밝고 건강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쇼핑도 즐기며, 가족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에만 있는 것은 답답해요! 힘든 시기이지만, 하루 빨리 종식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야자키 여러분들도 부디 밝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도 있겠지만, 힘을 내서 함께 이겨내 봅시다!



이전 미야자키에 체재 했던 Steven Bazzell씨로부터 하와이에서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와이에서는 보통 1일 평균 28,000명의 방문자가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그중 일본인이 4~5000명으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3월에 모든 것이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이 폐쇄되어, 하와이로 입국한 사람은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조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방자치체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여 경찰은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하여 수감되기도 합니다. 체포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 본토에서 온 방문자로 싼 가격에 할인하는 항공권과 호텔에 현혹되어 하와이로 놀러와 호텔에서 빠져나와 해변이나 다른 장소로 갑니다. 휴가로 와서 방 안에서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주 전체로 감염된 사람은 약 620명으로 그 가운데 540명이 완전히 회복하였고 사망자는 16명입니다.

하와이는 쾌청한 날씨에 바다에서 부는 시원한 산들바람 때문에 다른 주와 비교해서 중상자는 적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뒷마당에서 지저귀며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는 등 이러한 소소한 것만으로도 행복한 기분이 듭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 기쁜 걸까? 슬픈 걸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등을 상상해 봅니다.

또 지인, 친구들과 메일로 연락하며 느낀 점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하고 있는 지금, 외로움을 느끼거나 우울한 감정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아내와 함께 저녁에 3키로 정도 걸으며 체력 유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이곳 호놀룰루나 미야자키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도서코너의 소식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 『TRANSIT』

편집자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본 경치, 음식,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인생관부터 역사와 문학, 영화 등 다양한 시점으로 그 나라를 알 수 있는 여행 문화 잡지입니다. 잡지에는 아름다운 사진이 한가득으로 '여행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접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딱 좋은 책입니다. 최근에 발행된 것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46호(특집: 중국의 사천년 식문화 탐방 여행)를 추천합니다. 미야자키에서 활기 넘치는 중국의 배경인 풍부한 식문화 탐방 여행을 떠나보는건 어떨까요?

미소:미야자키의 소소한이야기

《 계획 》



국제교류원 박유진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앞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계획 없이 일단 행동으로 옮기는 편이신가요? 저는 항상 계획을 먼저 세우고 행동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매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이번년도 계획으로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하기, 토익 시험 보기, 아오시마 마라톤 대회 참가하기' 등 다양한 계획을 세워놓았지만, 아쉽게도 올해는 코로나 덕분에(?) 계획대로 진행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나, 아오시마 마라톤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 그런지 막상 계획대로 풀리지 않게 되니 조금은 의욕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이 올해 중요한 계획이나 목표가 있었던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다양한 변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먹은대로, 계획한 대로 쉽게 풀리지 않게 되지요. 그럴 때는 낙담하거나 포기 하지 않고 끊임 없이는 바뀌는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세워둔 계획은 잠시 뒤로 미뤄두고 플랜B로 또 다른 계획을 세워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 어떤 또 다른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